



#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건설사(주)우방 8개월 만에 1조 원 공사 수주, '유셀' 브랜드로 부활



대구 달서구 파호동의 '성서우방유셀' 조감도.

(주)우방이 지난해 6월 '유셀'이라는 브랜드로 수요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이후 명가를 짓는 주택 건설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책임감 있고 투명한 경영 철학으로 주택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우방의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에디터 김소진 자료 제공 (주)우방

대구의 대표적인 건설사(주)우방이 과거 명성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세븐마운틴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우방은 1년여 만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주)우방은 1978년 대구에서 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주)우방주택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 사업에 나섰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단독주택 16가구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서울, 수도권 등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이 회사는 대구 지역 주택 보급 실적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1989년 주택 건설 실적으로 전국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전국의 건설업체 가운데 상반기 순이익 1위에 올랐고, 같은 해 아파트 공급량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분양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주)우방은 지방 향토 기업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990년대에 이미 중소형 아파트의 3베이 평면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지상을 녹지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두는 구조도 (주)우방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 요즘 보편화돼 있는 '중도 금무이자 대출' 제도와 각종 마케팅 기법들을 고안해 주택업계에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다.

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정비사업의 주상복합건물 투 시도, 2 화성 향남지구의 '우방 유셀' 조감도,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역 우방 유셀' 조감도.



작년 2월 재탄생한 우방, '유셀' 브랜드 론칭 성공 하지만 2000년 IMF 사태 이후 경영난으로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5년간 법정관리가 이어졌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기업 해체만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방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를 구성하는 등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2005년 2월 세븐마운틴 그룹에 편입된 이후 우방은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했다. 수주 물량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에만 총 1조 800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고 3500억 원대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 주요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는 오는 7월 분양 예정인 대구 수성구 사월동 '사월우방 유셀' 1015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5개 단지 3500여 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조일알미늄 부지에 들어설 '시지우방 유셀' 은 33평형 373세대, 38평형 36세대, 43평형 282세대, 47평형 107세대, 52평형 180세대, 61평형 36세대 등 지하 2층에서 지상 14~18층 규모로 모두 101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우방은 지난해 6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셀 브랜드 선포식' 을 가졌다. '당신을 위한 집' 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셀' 은 부드러운 곡선의 모양으로, '최고 품격의 주거 공간' '여성 을 위한 주거 공간' '유비쿼터스적인 주거 공간' 을 상징화했다. 현재 텔런트 송혜교가 '유셀' 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며, '유셀' 브랜드를 홍보·광고하는 데 약 50억 원이 투입됐다. 앞으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교통, 교육 등 주거 환경이 가장 뛰어난 핵심 요 지에 최고 품격의 초현대식 아파트 '유셀' 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우방 관계자는 "앞으로 40평형대 이상 대형 평형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남에 따 라 넓은 구조의 최신편 구조를 지닌 대형 최고급 아파트를 널리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 이라며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은 기본이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미래 지향적인 주 거 환경을 만들 것" 이라고 말한다.

올해, 전국 10위권 달성을 위한 원년의 해 삼아 한편 (주)우방은 사회공헌 사업 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를 돕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희귀성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 한 활동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는 2005 한국사회 공헌대상의 지역사회봉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주)우방의 목표는 '국내 10위권 주택 건설업체' 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우방 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안정적인 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건설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공장, 특수 건축물, 해외 플랜트 수출 등에 수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남건설을 인수해 새로운 사업 진 출을 위한 활로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

# 변재신

(주)우방 대표이사



# 주택업계 신화를 다시 쓰는 주인공

지난해 6월 취임한 현대건설 출신의 전문 경영인 변재신 사장. 그는 철저한 책임과 투명·윤리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경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된 우방의 브랜드 '유셀(u.fell)' 이 고품격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는 데 심혈을 쏟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놓은 성장의 바탕 위에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질적인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06년에는 2조 5000억 원대의 수주 및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투명경영을 통해 경영 과정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책임경영을 통해 팀별, 부서별 창조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신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해 민·관급 공사 수주 사업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변재신 사장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우방 컨소시엄이 봉무 지방산업단지의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에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서울,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주택 시장과 SOC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해외 건설 사업 부문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사업

구상안을 털어놓았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건설 사업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특수 건축물과 해외 플랜트 수출 등에 수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남건설을 인수해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작년 1조 8000억 원 수주, '유셀' 브랜드 론칭 성공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지방의 분양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우방은 지난해 1조 8000억 원을 수주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대구, 경북 지역 4개 단지에 220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단지에 6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대구 지역에서 사월우방유셀 1015세대를 1, 2차로 나눠 분양할 예정이며,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도 첫선을 보이는 등 향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방이 법정관리를 마치고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대단합니다. 우방은 이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건설회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내년에는 우방이 세계로 진출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집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고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변재신 사장. 소비자들의 신뢰가 (주)우방이 존재할 수 있는 원천이며, 자신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의 바람대로 90년대 우방의 신화를 다시 쓸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